

『기성잡시(鬢城雜詩)』에 나타난 다산의 두 가지 시선(視線)

김 은 미*

차 례

- | | |
|-----------------------|------------------------------|
| 1. 서론 | 4. 다산 시선의 의미 |
| 2. 다산과 『기성잡시(鬢城雜詩)』 | 1) 적객(謫客)의 울울함과 자중의 태도 |
| 3. 『기성잡시』 속 두 가지 시선 | 2) 관념적 인식의 탈각(脫却)과 실증 지향적 사고 |
| 1) 향내적(向內的) 자기 응시의 시선 | 5. 결론 |
| 2) 향외(向外)의 관찰자적 시선 | |

국문초록

다산의 장기(長鬢) 유배 초기의 시 『기성잡시(鬢城雜詩)』는 그간 장기의 풍경과 장기 사람들의 생활을 묘사한 시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기성잡시』 이면에는 다산의 두 가지 시선이 나타난다. 그것은 자기 문제에 몰두하는 자기 응시의 시선과, 자신이 대면하게 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찰자적 시선이다.

다산은 유배지 장기에서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는 병약한 자신을 바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라본다. 이런 유배의 상황이 책을 깊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책에서 관심을 놓지 못 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에 그려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장기 여인의 말씨와 머리꾸밈새, 장기 지방의 살풍경(殺風景), 장기의 생활상과 특산물 등, 자신의 새로운 환경에도 시선을 보낸다.

이런 향내(向內)와 향외(向外)의 두 가지 시선은, 유배객의 우울함과 향수 속에서도 자중하는 다산의 정서를 드러내는 한편, 교화의 대상으로 파악하던 민(民)에 대해 관념적 인식을 벗고 새로이 다가서는 다산의 모습을 그의 실증 지향적 사고와 함께 보여준다.

다산 시문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유배기 문학에 나타난 다산의 정서도 규명해야 하며, 유배기 문학으로 통칭되는 것 가운데 장기 유배기의 문학에도 따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장기 유배기 시를 대상으로 초기부터 순차적으로 다산의 정서를 재구해 보는 그 첫걸음이라 하겠다.

주제어 : 다산, 정약용, 장기유배, 기성잡시, 유배기 문학, 유배시

1. 서론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에게 유배는 강하고도 지속적인 충격이었다. 정조의 승하 이후 다산이 겪은 광풍과도 같은 일들은 마흔이 된 다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다산은 겨우 목숨만을 구해 궁벽한 시골로 쫓겨가야 했다.

관료 사회에 진입한 이후 다산은 정조의 총애 속에 여러 자리에 중용되었다. 그러나 다산은 정조에게도 불안한 선택이었다. 노론뿐만 아니라 공서파까지 나서서 정약용과 정약전(巽庵 丁若銓, 1758~1816) 형제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의 약점은 서학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었다. 이벽(曠庵 李穡, 1754~1785)의 소개로 처음 접하게 된¹⁾ 서학은, 학문적 호기심이 왕성한 젊은 다산 형제에게 큰 지적 자극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들을 평생 읊아맨 구속이 되기도 했다. 관료사회에서는 서학에 접근하고 그것을 공부한 이들 형제 이하 신서파를 백안시하였다. 스스로 해명한 대로 후에 다산은 배교를 선택하지만, 노론은 물론이고 같은 남인의 공서파조차도 이를 믿지 않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조는 다산을 지방관으로 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봉을 피하게 하였다. 형조참의에 제수되었던 다산이 여론이 나빠지자 곡산부사로 나가게 된 일²⁾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랬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정조의 죽음 이후, 다산 형제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후, 정순왕후의 세력 하에서 이들 형제는 서학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책룡사건에 휘말려 유배를 떠나게 된다. 다산은 경상도의 장기현으로, 손암은 전라도의 신지도로 가게 된 것이다. 1801년 3월의 일이었다.

장기(長鬢) 유배가 다산의 첫 유배는 아니었다. 1790년 다산은 이미 해미(海美)에서 유배살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유배는 상대편의 공격으로부터 다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조의 선제적 보호책이었다. 실제로 유배를 명받고 해미에 도착한 후 다산은 바로 해배되었고,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다산은 한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³⁾ 그러나 장기 유

1) 다산의 나이 23세이던 1784년의 일이다. 송재소, 『사암선생연보』, 『다산시 연구-부 다산연보』, 창작사, 1986, 198-199쪽 참고.

2) “임금이 말하기를, “구설(口舌) 때문에 두려우니 물러가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마침 곡산에 빈 자리가 있어 어필(御筆)로 첨서낙점(添書落點)하였다.” 위의 책, 255쪽.

3) 다산의 나이 29세이던 1790년의 일이다. “3월 초8일, 임금의 엄한 분부를 받고 해미현(海美縣)으로 정배(定配)되었다. 13일에 배소(配所)에 이르렀는데, 19일에 용서를 받고 풀려났다.” 위의 책, 207쪽.

배는 달랐다.⁴⁾ 이번 장기행은 확실한 유배였고 분명한 형벌이었다.

다산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18년이나 되는 강진 유배기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다산의 실질적인 첫 유배는 장기 유배였다. 유배의 경험은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절감하게 하는 일이었다. 다산은 장기 유배를 통해,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장기 유배기 초기의 시를 통해, 시에 나타난 다산의 유배 초기 정서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시가 개인적 정서와 소원의 표현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신상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다산의 정서를 그가 남긴 시를 통해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장기 유배 초기에 다산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시선으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았을까? 또한, 유배기 초기 다산의 정서는 이후 18년이나 이어진 다산의 유배기 문학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게 될까?

다산 시에 대한 연구 성과 가운데 유배기 다산 시를 다룬 연구가 매우 많지만, 상대적으로 장기 유배기는 강진 유배기에 비해 연구자의 관심을 덜 받아왔다. 그러나 다산 유배기 문학의 모습, 넓게는 다산 시문학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배기 문학으로 통칭되는 것 가운데에 장기 유배기 문학에도 따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장기 유배기의 시문학

4) 정조가 승하한 후 권력을 잡은 정순왕후는 정조 승하 다음 해인 1800년 1월 10일 천주교 금지령을 발표한다. 서울에 있던 윤지눌과 이유수 등은 사건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정약용에게 편지를 보냈고, 초천에 있던 정약용은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상경했다. 초천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직접 정세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2월 8일에 정약전이 체포되고, 다음 날 정약용도 투옥되며, 2월 11일에는 셋째 형 정약중(丁若鍾, 1760~1801)도 잡혀 들어간다. 여러 차례의 국문과 심문을 거쳐, 정약용은 부내(府內)에 보방(保放)되는 형식으로 2월 17일에 일단 풀려나지만, 정약중은 2월 26일에 이승훈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후 정약용과 정약전은 사형에서 감면하여, 다산은 장기로, 정약전은 신지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겨우 한 달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6, 499-514쪽 참고.

5) 김준오, 『시론』 제3판, 삼지원, 1991, 22-23쪽.

을 다루면서도 초기부터 순차적으로 다산의 정서를 재구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런 점에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다산과 「기성잡시(鬢城雜詩)」

2월 29일 서울을 떠난 다산은 석우촌, 사평촌, 가흥 등을 거쳐 하담에 이르고, 하담 선영에 들러 인사를 올린 후 문경새재를 넘어 장기로 들어왔다. 3월 9일 장기에 도착한 다산은, 같은 해 10월 20일 다시 서울로 압송되기 전까지 220일 정도⁶⁾를 장기에서 머물렀다.

유배길에서 지은 시가 여러 편 있기는 하지만,⁷⁾ 다산이 실제로 장기에 도착해서 지은 첫 번째 시는 「기성잡시」 26수이다. 이 시는 그 동안 “장기 지방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을 묘사”⁸⁾한 시라든가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기 풍경과 사물을 노래한”⁹⁾ 시로만 언급되어 왔다.¹⁰⁾

이 시의 저작 시기가 유배 초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장기에 도착한 직후”¹¹⁾라거나,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¹²⁾라고 보기도 하며,

6) 김윤규, 「장기 유배기 다산 시의 성격」, 『동방한문학』 57권, 동방한문학회, 2013, 253쪽.

7) 다산의 문집에는 「석우별(石隅別)」, 「사평별(沙坪別)」, 「하담별(荷潭別)」, 「과탄금대(過彈琴臺)」, 「조령(鳥嶺)」 등 장기로 향하는 유배길에 지은 시들도 수록되어 있다.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87-389쪽 참고.

8) 김봉남, 「다산의 장기 유배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8권, 한국한문학회, 2006, 383쪽.

9) 김윤규, 앞의 논문, 264쪽.

10) 다산은 장기에 있는 동안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61제 186수에 달하는 시와, 부(賦) 1편, 편지 4편과 함께, 서문만 남은 『촌병혹치(村病或治)」, 또 『몽학의휘(蒙學義彙)」라는 이름의 정약전 저작으로 뒤바뀌어 전하는 『이아술(爾雅述)」,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과 『정체전중변(正體傳重辨)」으로 발전된 『기해방례변』, 지금은 전하지 않는 『삼창고훈(三倉詰訓)」이 모두 이 시기의 저작이다. 위의 논문, 264쪽 주26번 참고.

11) 김봉남, 앞의 논문, 383쪽.

“배열순서와 내용으로 보아 3월 10일 성선봉의 집에 머무르게 된 이후 대략 3월 중순 무렵의 시점에 지었다고 추정”¹³⁾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시기순으로 정리된 다산 문집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유배기 제일 앞에 놓인 이 시가 장기 유배기 초기 시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다만, 이것은 시작(詩作)의 시작(始作)에 대해서만 그렇다.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는 하루 이틀의 경험으로 쓴 시가 아니다. 적어도 다산이 자신의 유배지에 적응할 정도까지의 보다 긴 시간적 경험에 기반한 시이다. 『기성잡시』는 유배 초기 일정 정도의 시간적 경험이 녹아 있는 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산은 『기성잡시』에 대해, “긴긴 날에 할 일이 없어 지은 짧은 시구로, 뒤섞여 순서가 없다”¹⁴⁾고 하였다. 따로 할 일이 없는 유배객이 틈틈이 읊은 시를 모았다는 것이다. 틈틈이 읊은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므로, 이 시에 치밀한 구성이나 일관된 주제의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시작(詩作) 목적이 선명하지 않은 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일견 “장기 지방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을 묘사”¹⁵⁾했거나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기 풍경과 사물을 노래”¹⁶⁾한 시로만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가 시인의 솔직한 정서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구성을 생각하고 주제를 의식하며 지은 시에서 찾기 어려운, 시인 자신의 그때그때의 진솔한 시각이 잘 드러난 시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장기 지방의 사물과 장기 지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시화하는 가운데 시인 자신의 모습이 산견(散見)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12) 김윤규, 앞의 논문, 264쪽.

13) 조성을, 앞의 책, 538쪽.

14) “長日無事 時得短句 雜而無次”,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90쪽.

15) 김봉남, 앞의 논문, 383쪽.

16) 김윤규, 앞의 논문, 264쪽.

이다. 이 연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실제로 26수의 시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기의 풍속을 읊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경주는 물론 고향 초천에까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 속에 장기 유배 초기 다산의 정서가 녹아있는 것은 물론이다.

3. 『기성잡시』 속 두 가지 시선

『기성잡시』에서 다산은 많은 것들을 시로 썼다. 새로운 환경에 놓인 유배객 다산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시에 나타난 다산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각각, 자기 문제에 몰두하는 자기 응시의 시선과,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세계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는 관찰자적 시선이다. 유배객 다산은 자신이 살게 될 유배지의 새로운 환경에 시선을 보내지만, 유배라는 자신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다산의 『기성잡시』에는 이런 다산의 두 가지 시선이 모두 드러나 있다.

1) 향내적(向內的) 자기 응시의 시선

장기에서 다산이 거처를 얻은 것은 장기 도착 다음 날인 3월 10일의 일이었다. 시에 따르면 다산은 텃집 한 곳을 지정받는다.

朝海樓頭落日紅	조해루 꼭대기에 지는 해 붉은데
官人驅我出城東	관리가 나를 몰아 성 동쪽에 나왔네
石田茅屋春溪上	동쪽 시내 위 자갈밭에 텃집 하나
也有佃翁作主翁 ¹⁷⁾	밭가는 노인이 그 집 주인이라네

17) 제4수

석양빛이 비치는 것으로 보아 조해루는 성의 서쪽에 있는 누각일 것이다. 관리는 조해루 꼭대기에 석양이 걸린 저녁 무렵에야 성의 서쪽에서 출발하여 성 동쪽 마을의 한 집으로 다산을 데리고 갔다.

다산은 시냇가 자갈밭에 선 집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서 밭을 갈던 노인을 만났다. 마산리에 있는 늙은 장교(將校) 성선봉(成善封)의 집을 정하여 있게 되었다는 원주(原註)를 참고하면, 이 노인은 집의 주인이자, 원주에 소개된 성선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교는 조선시대 각 군영에 속해 있는 군관으로, 성선봉은 장교직을 수행하면서 농사도 짓는 모양이었다.

시에는 배소(配所)에서 살아가는 다산의 삶이 나타난다. 다산이 거하게 된 뗏집은 다소 허술한 공간이지만,¹⁸⁾ 그곳에서도 다산의 일상은 지속된다. 다산은 평상에 앉아 쉬거나 보리송늬를 마시기도 하고, 이른 봄 맑은 날씨 덕에 잘 마른 해초에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¹⁹⁾ 새잎이 돋은 나무를 보고서 이것이 바닷가 석류구나 하는 작은 발견의 기쁨도 누린다.²⁰⁾

그러나, 경제의 꿈을 펼치고자 관료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던 다산에게 이런 일상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다. 적객(謫客)의 삶은 그야말로 무위도식(無爲徒食)이었다. 소일거리는 한 가지도 없어서 밥을 먹고 하릴없이 잠을 자는 삶이 이어졌다. 때때로 이웃 영감이 와서 함께 장기를 두기도 하지만, 유배지에서의 이런 삶은 무료하기 그지없었다.²¹⁾

病濕經春癱瘓成	습한 병이 봄 지나 마비가 왔네
北脾不慣喫南烹	북녘 입맛이 남쪽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지
思服禁方蒼朮酒	비방인 창출술을 생각해 보지만

18) “炕室涼軒各一間 主人相對有歡顏 新補竹籬疏似網 不愁遮斷面前山” 제12수

19) “毛羅鬣帽據松牀 日本瓷杯進麥湯 海棠今年都善曬 早春風日幸清涼” 제13수

20) “飯稻羹魚事便休 不將花木費閒愁 籬間擁腫知何木 新葉看來是海榴” 제14수

21) “飯罷須眠眠罷飢 飢來命酒煮金絲 都無一事堪銷日 隣叟時來著象棋” 제16수

小奴持鏡問鄉名²²⁾ 중녀석은 약술 들고 고향을 묻는구나

이 무렵 다산은 아프기도 했다. 유배를 떠나기 전에도 다산에게는 습증이 있었던 모양인데, 봄이 지나고 유배지에 머물게 되면서 병이 심해졌다. 다산은 그 이유로 음식을 꼽고 있다. 북쪽에 살던 사람이 남쪽 바닷가 마을에 와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고생을 했던 것이다.²³⁾

병이 심해지면서 다산은 고향을 생각한다. 문면에 향수(鄉愁)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노의 입을 빌려 고향[鄉]이라는 말을 적고 있다. 유배지에서 무료하게 지내다가 병까지 깊어진 다산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의 음식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유배객 다산의 괴롭고 우울한 심사와 향수(鄉愁)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書卷深知誤此生	서책을 깊이 알아 이 인생 그르쳤지
餘生逝與割恩情	남은 삶은 맹세코 그 정 끊으려 했는데
心根苦未消磨盡	아직 남은 마음 속 뿌리 괴롭기만 하구나
臥聽隣兒讀史聲 ²⁴⁾	이웃 아이 책 읽는 소리 누워서 듣고 있으니

그러나 제18수를 보면 다산이 무료하고 병약한 현재 상황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산의 시선은 그런 일상의 괴로움을 넘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응시하고 있다.

시에서 다산은 자신의 인생을 이미 그르친 삶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서책에 있다고 한다. 서책을 깊이 안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쳤다는 것이다. 유배의 원인도 서권심지(書卷深知)라는 것이다. 그래

22) 제17수

23) 세자가 애플 때 약을 지으러 입궐할 뻔도 했던 다산의 만년을 생각할 때, 자신의 병세에 대한 비방으로 창출술을 떠올리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다산은 의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장기에 있는 동안에도, 시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약초로 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촌병혹치(村病或治)』를 지었다. 정민, 『파란』, 천년의상상, 2019, 357-358쪽 참고.

24) 제18수

서 다산은 자신의 남은 삶에서는 서책에 대한 정을 끊으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 언술일 뿐이다. 자신의 삶을 망친 서책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은 다산이지만, 그러나 다산은 누워서도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가 그냥 들린 것이라기보다는, 다산이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들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책을 끊으려 한다고 했으나 끊지 못하는 것이다. 다산의 관심이 여전히 서책에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의 마음 속 뿌리이면서 그래서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은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즉 여전히 서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다산은 시속과 단절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세상과 절연할 생각이 없는 다산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배지에 묶여 있었다. 이런 구속 상태의 다산과 달리, 장기의 자연은 자유로우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기를 더하고 있다. 유배지에 도착한 3월 9일 이후로,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하고 있다. 보리는 푸르게 자라고 복숭아 열매도 조금씩 커가고 있다.²⁵⁾ 꽃도 피고 나비도 난다.²⁶⁾ 다산은 그런 세상을 보고 싶기도 하고, 슬슬 구경을 나가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은 유배객이다. 그래서 지금은 깊은 곳에 틀어박혀 지은 죄만 생각하며²⁷⁾ 자중하고 있다. 가까운 산에라도 가고 싶지만 그런 마음은 몰아낸 채, 산책도 하지 않고 칩거하며 자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숙하고 자중하는 것은 자신이 유배객이기 때문이다. 제20수에는 자신이 유배 중임을 인식하는 다산의 모습이 나타난다.

憶上烏棲落日看
桑溟又見浴金盤

오서에 올라 지는 해 보았던 일 기억하는데
오늘은 또 동해에서 뜨는 해를 보는구나

25) “非靄非雲養麥天 小桃如醉柳如眠” 제19수

26) “小園風暖菜花開 黃蝶青蟲遞去來” 제24수

27) “緩豈無步看山意 只得深居念罪愆” 제19수

吾遊豈盡東西海 내가 어찌 동해 서해 구경하게 되었을까
疆場由來未許寬²⁸⁾ 국토가 그리 넓지 않아서겠지

시의 원주에서 다산은 “옛날 금정(金井)에서 귀양살이할 때 오서산(烏棲山)에 올라가 해 지는 것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²⁹⁾고 적었다. 자신의 귀양살이 이력(履歷)을 더듬어 보는 것이다. 오서산에 올라 지는 해를 보았던 금정에서의 삶과, 동해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는 지금 장기의 삶은 모두 유배지의 삶이다. 국토가 넓지 않다든가, 동해 서해 다 구경했다든가 하는 말 역시 그저 언술일 뿐, 다산은 유배지에서 서해에 이어 동해도 보게 되는 자신의 현재 삶을 문득 깨닫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다산이 금정 시기를 귀양살이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금정 찰방 시절은 엄밀히 말해 유배가 아니었다. 좌천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관료로 지냈던 시절이었다.³⁰⁾ 그런데 이 시는 다산이 그 시절을 귀양살이나 다름없는 시기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지금 다산은 그런 유배의 삶을 장기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런 인식은 고단함을 불러일으킨다. 다산은 자신이 처한 낮은 환경과, 고달프고 힘든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한다.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도 이 무렵에 하게 된다.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 했던 흰 털에 대해 새로 깨닫게 되며, 흰 털의 개수에도 민감해진다.³¹⁾ 어느새 자신이 노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모습이 이 시에 처음 드러나는 것이다.

28) 제20수

29) “舊謫金井 登烏棲山觀日入”,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92쪽.

30) 1795년 7월 26일, 34세의 다산은 금정도 찰방으로 외보(外補)된다. 정조는 이 무렵 다산을 증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해 여름에 일어난 주문모(周文謨, 1752~1801) 신부 사건과 연이은 박장설(朴長壽, 1729~?)의 상소 등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해 12월 용양위 부사직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다산은 5개월 간 금정에 머물게 된다. 송재소, 앞의 책, 237-242쪽 참고.

31) “初春兩個白毛新 一個猶玄一個純 此地又來添一個 天然三個白如銀” 제21수

자신의 주거 환경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생선기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³²⁾ 날이 더워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비린내는 괴롭기 짝이 없다. 파리마저 꼬여 힘들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증창승부(憎蒼蠅賦)』 지은 일을 떠올려도 보고, 그 파리가 나의 게으름을 흠으라 징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파리는 괴로울 정도로 많기만 하다.

鮪腥蒸鬱苦多蠅	폭폭 찌는 비린내에 파리가 괴롭게도 많아
飯每徐抄睡早興	밥은 매양 늦게 들고 잠은 항상 일찍 깨지
天意分明懲懶散	이는 분명 하늘이 게으름 흠으라 징계함이니
昔人詞賦枉相憎 ³³⁾	옛사람이 부를 써서 미워했었지

그런데 파리가 많은 것에만 신경이 쓰였다면 밥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들끓는 파리를 쫓느라 잠에서 일찍 깨지만 그것이 실은 게으름을 멀리 하도록 하는 하늘의 뜻이라 그 자신이 시에 쓴 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밥이 늦게 든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다산을 괴롭히는 것이 파리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파리도 성가시지만, 파리를 쫓느라 잠은 일찍 깨는데 항상 늦게 들어오는 밥을 기다리는 자신의 일상도 다산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이 게으름을 흠으라 한 것은, 파리를 쫓아야 하는 자신뿐만 아니고, 밥을 늦게 들어오는 자신의 환경에도 해당되는 것이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린내와 파리 탓에 잠을 설치며 밥이 들어올 때까지 굶주리고 있는 자신의 지금 상황 때문에, 옛사람처럼 자신도 파리가 밍고, 파리를 포함한 지금의 상황까지 밍다는 것이다.³⁴⁾

32) “新榨魚油腥滿家” 제7수

33) 제22수

34) 엄밀히 보자면, 구양수의 이 글과 다산의 이 시는 소재적 측면에서만 공통점이 있다 할 수 있다. 구양수의 작품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청승(靑蠅)을 모방하여서 참소꾼을 쉬파리에 비유하여 비난한 것이다. 쉬파리가 보잘 것 없는

鼈蟲嗜肌睡不成	이가 깨무니 잠을 이룰 수 없고
吳公行壁又堪驚	지네가 벽에 다녀 사람 놀라네
須知蠹齒非吾有	작은 벌레들 이빨도 내 맘대로 못하니
念此怡然順物情 ³⁵⁾	그렇게 생각하고 형편대로 할 수밖에

다산을 괴롭히는 것은 파리만이 아니었다. 이가 깨무는 통에 잠을 잘 잘 수 없고, 벽에 지네가 다녀 때때로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은 무력할 뿐이다. 작은 벌레의 이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시에서 다산은 때때로 자신의 내면과 감정 속으로 침잠하기도 한다. 제25수에는 아버지에 대한 다산의 그리움이 나타난다.

疇昔烏繩小隱囊	옛날에 검정실로 짠 작은 은낭
隻身携汝到殊方	나 혼자 너를 안고 이곳저곳 다 간 것은
非唯臥起相須切	누우나 서나 네가 절실해서가 아니라
爲是摩挲手澤方 ³⁶⁾	아버지 매만지시던 자취가 있어서지

은낭은 안석(案席)을 말한다. 그런데 다산은 황망하게 떠났던 유배길에도 은낭을 챙겨왔다. 그 은낭은 아버지께서 쓰시던 것이었다. 아홉 살에 친모를 여윈 다산은 한동안 형수의 돌봄을 받다가 서모가 들어온 뒤에야 새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살게 된다. 그 사이 몇 년은 아버지의 애정을 받으며 자랐고, 공부도 다른 스승이 아닌 아버지에게 배웠다. 아버

미물이면서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마치 간악한 소인배들이 참언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나 같다고 이 글에서는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주 역저, 『고문진보』 후집, 명문당, 1989, 387쪽. 파리를 보고 구양수의 명문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나, 다산이 『증창승부』가 비홍(比興)임을 몰랐을 리 없다. “止棘之詩 垂之六經 於此見詩人之博物 比興之爲精”, 구양수, 『증창승부』. 위의 책, 386-387쪽.

35) 제23수

36) 제25수

지에 대한 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다산이었다.

장기로 오는 도중, 다산은 선영이 있는 하담에 들러 아버지의 묘소에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은낭을 지닌 채 장기로 향했다. 다산은 선친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내내 간직한 것이다.

2) 향외(向外)의 관찰자적 시선

뒤섞여 순서가 없다고 했지만, 『기성잡시』 앞부분에는 주변 환경을 관찰한 내용의 시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다산은 제1수에서 동해의 풍경을 시로 적었다. ‘동쪽으로 부상(扶桑)까지 섬 하나 없이 물빛만 가득’³⁷⁾한 동해를 그리고 있다. 또 제2수에서는 ‘끝도 없는 푸른 물 넘어’³⁸⁾ 일본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자신이 머물게 된 장기의 자연 환경,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바다에 주목한 것이다.

제3수에서는 장기의 풍경을 제시한다. 다산이 일별(一瞥)한 장기의 풍경은 쓸쓸하고 남루하다. 샘이 없는 산꼭대기까지 인가가 벌여있고, 그 집들에는 제대로 된 대문 대신 거적문이 드리워져 있다. 다산이 장기에 도착한 음력 3월 9일 무렵에는 봄꽃도 시들고 있어, 지다 남은 꽃과 거적문이 마을의 남루함을 더한다.

峯頂蕭條四十家	산꼭대기에는 사십 채 인가 쓸쓸한데
縣門鼓側倚殘花	거적문이 지다 남은 꽃 속에 비스듬하네
都無一眼泉供飲	한눈에도 동네에는 물 마실 샘 없는데
將謂繩城用水車 ³⁹⁾	성 위에다 줄 매달고 수차를 쓰리라 말하네

이것이 장기현 읍성 안의 풍경은 아니다. 읍성 안에 4개의 우물과 2개

37) “東直扶桑水氣昏” 제1수

38) “眼前一碧無邊水” 제2수

39) 제3수

의 못이 있고, 현의 남쪽 2리에 있는 옛 읍성 안에 샘이 2개 있다는 이전 기록⁴⁰⁾에 따르면, 제3수의 마을은 우물과 못이 있다는 읍성 안이 아니고, 옛 읍성 안에 샘이 있다는 성의 남쪽도 아니다. 제4수를 고려할 때 이곳은 성의 동쪽 마산리(馬山里)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집은 크지 않다. 방과 마루가 각 한 칸인데, 대울타리는 그물 같이 성 글고 그 사이로 앞산이 훤히 보여서 주인과 마주치면 서로 겹연쩍어하며 웃는 상황이다.⁴¹⁾ 처마 끝에 그물을 치고 긴 창을 꽂아둘 정도로 삼엄했던 당시 기성의 방비를 생각하면, 다산이 머문 집은 허술하게까지 느껴진다.

樹柵家家二丈強	집집마다 두 길 넘게 울타리를 세워두고
欄頭施罟挿長槍	처마 끝에 그물 치고 긴 창까지 꽂았네
問渠何苦防如許	어찌해서 저와 같이 힘써 방비하는가 물으니
終古讐城壯虎狼 ⁴²⁾	예부터 장기에는 범과 이리 기승부린다 하네

장기의 살벌한 울타리는 다산에게도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장기의 집들은 집집마다 사람 키의 두 배나 되는 울타리를 세우고, 그것으로 모자라 처마 끝에 그물을 치는가 하면, 긴 창까지 꽂았다. 이런 살벌한 경계는 범과 이리 같은 맹수 때문이라 한다. 맹수의 공격에 노출된 장기의 환경과 그에 대비하느라 발달한 무시무시한 방비책, 이런 살풍경(殺風景)이 앞으로 다산이 머물 곳의 모습인 것이다.

기성에 대한 다산의 관찰은 다음 시에서도 나타난다.

女音如慍復如嬌	여인들 말씨가 성난 듯 혹은 교태부리는 듯
孫穆書中未盡描	손목(孫穆)처럼 쓴다 해도 묘사 다 못 해
不用一錢思買鬣	다리[加鬣] 사는 데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40)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민족문화추진회, 1968. 387쪽.

41) “炕室涼軒各一間 主人相對有歡顏 新補竹籬疏似網 不愁遮斷面前山” 제12수

42) 제5수

額前紅髮插雙條⁴³⁾ 이마 앞 붉은 머리 두 갈래로 꽂아두네

이 시는 장기 사투리에 대한 다산의 인상을 담아내고 있다. 성난 듯 느껴지기도 하고 교태 부리는 듯 느껴지기도 하는 기성 여인들의 말씨⁴⁴⁾에 다산은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하다. 주로 한양과 마재를 오가며 살았던 다산에게는 경상도 억양이 낯설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산의 관찰자적 시선은 장기 여인들의 말씨 외에, 그들의 머리 꾸밈새에도 향하고 있다. 당시의 여성들은 머리술이 많아 보이도록 땀머리를 덧대어 드리우곤 했는데, 이런 풍조는 당대를 휩쓸던 것이어서, 영정조 때에는 다리[加髻]를 금하는 명을 내린 일⁴⁵⁾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한양 중심적 삶의 이야기이다. 한양과 그 주변에서는 여인들이 머리 꾸밈을 위해 다리를 장만하는 것이 익숙한 일일지 모르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 지역의 여인들은 다리를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머리를 이마 앞에 두 갈래로 꽂을 뿐이다. 한양에서 주로 지냈던 다산의 눈에 이런 기성 여인들의 꾸밈새가 낯설었다. 그런 꾸밈새를 실용적이거나 한 것으로 평가하지도 않았다. 다음에 그려진 장기의 생활상을 고려할 때, 다산은 장기 여인들의 이런 머리꾸밈새를 오히려 촌스럽다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43) 제6수

44) 다산은 장기 여성들의 특이한 억양을 들으며 송나라 사람 손목을 떠올리고 있다. 손목이 쓴 『계림유사(鷄林類事)』에는 고려 시대의 어휘 350여 개가 한자(漢字)로 표기되어 있다. 『국역 다산시문집』 제4권 194쪽 주3번.

45)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의 가체(加髻)를 금하고 속칭 족두리(簇頭里)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가체의 제도는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곧 몽고의 제도이다. 이때 사대부가의 사치가 날로 성하여, 부인이 한번 가체를 하는 데 몇 백 금(金)을 썼다. 그리고 갈수록 서로 자랑하여 높고 큰 것을 숭상하기에 힘썼으므로, 임금의 금지시킨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32년 (1756년) 1월 16일 조. 조선왕조실록 DB.

新榨魚油腥滿家	새로 짠 생선기름 온 집안에 비린내
靑蘇不種況芝麻	들깨도 안 심는데 참깨가 있을까
石苔充豆杞牽髮	김 그릇 숟가락엔 머리카락 끌려나오고
山穉烹銜飯有沙 ⁴⁶⁾	가마솥 산돌벼밥에 모래까지 섞여있네

시에 나타난 기성의 시골살림은 형편없다. 집안에는 비린내가 진동한다. 기름류로는 보통 참깨나 들깨를 짜서 쓰는데, 장기에서는 참깨는 물론 들깨도 심지 않으니 당연히 그런 것들로 기름을 짤 수 없다. 그래서 생선기름을 대신 짜서 쓰는 바람에 온 집안에 비린내가 가득한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농작물이 다양하지 않아 생선기름으로 식용유를 대체하는 기성의 작물과 관련된 생활상의 특성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장기의 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산의 평가가 반영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장기의 수준 낮은 생활상에 대한 다산의 인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이 담긴 그릇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돌벼밥에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비위생적 생활이다. 이 시에는 이런 생활 수준에 대한 다산의 당혹스러움과 생경함이 표현되었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인들의 머리꾸밈새도 다산에게는 ‘다르다’가 아니라 ‘못하다’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7수에서 수준 낮은 시골살림을 바라보는 다산의 시선은 제6수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유배지의 열악한 생활 형편을 관찰하고 그려낼 뿐 아니라, 은연중에 이에 대한 다산의 당혹스러움과 생경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다산은 앞으로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기의 실제적 현실이라는 것이며, 다산이 이를 직접 목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산은 장기의 산물(産物)을 시로 그리기도 했다. 그것은 각각 울릉도

46) 제7수

에서부터 채취해온 대나무와, 문어나 해구신 등의 해산물⁴⁷⁾, 그리고 동산의 뇌록(磊碌)이다. 죽란시사(竹欄詩社)를 꾸렸던 다산에게는 대나무가 그다지 신기한 토산품이 아니었겠지만, 문어라든가 해구신, 뇌록 등은 진귀한 물품이었다. 기성에서 이런 물산을 본 다산은 이를 시로 남겼다.

東山磊碌亦奇珍	동산의 뇌록 또한 진기하구나
石髓青筋似茯神	돌에 박힌 파란 줄기는 복신과도 비슷하네
染局不曾充歲貢	제용감(濟用監) ⁴⁸⁾ 에서 공물로 받지 않은 덕에
零陵乳穴 ⁴⁹⁾ 自千春 ⁵⁰⁾	영릉의 종유혈이 천 년 내내 계속이라네

제10수는 염료의 원료가 되는 뇌록에 대한 시이다. 시의 원주⁵¹⁾에 따르면 뇌록은 녹색(綠石)으로, 뇌성산(磊城山)에서 난다. 뇌성산은 장기현의 북쪽 19리에 있는데, 여기서 나는 뇌록은 장기의 토산품으로 알려져 왔다.⁵²⁾ 다산은 제용감에서 뇌록을 공물로 받지 않은 덕에 장기에서는 지금도 뇌록이 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뇌록을 바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공물에 시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도 장기에는 뇌

47) “休放兒童港口漁 怕他纏著八梢魚 年來臘脯逢刁躑 頗有京城宰相書”
 48)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인삼의 진상과 국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채색입염(彩色入染 : 색을 입히고 물감을 들임)·직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49) 이것은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연주군복유혈기(連州郡復乳穴記)』와 관련된 내용이다. 김학주, 앞의 책, 321-324쪽. 이 글에서 유종원은, 고갈 상태로 보고되었던 석종유(石鐘乳)가 연주자사 최공의 부임 이후에 복구되었다는 변화를 들어, 관리의 덕치가 백성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이 이 부분을 차용한 것은 표면적으로 종유혈과 뇌록의 소재적 유사성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 목민관의 태도에 대한 견해도 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50) 제10수
 51) “磊城山產綠石 可以施采 土人謂之磊碌”,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91쪽.
 52)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386쪽.

록이 많다는 것이다. 공물 문제가 백성들의 삶에 직결된다는 다산의 인식이 관찰자적 시선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4. 두 가지 시선의 의미

1) 적객(謫客)의 울울함과 자중의 태도

『기성잡시』에 향외(向外)와 향내(向內)의 두 가지 시선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런 두 방향의 시선이 나타나는 양상은 시에서 개별적이지 않다. 자기 응시의 시선과 관찰자적 시선 두 가지가 시의 각 편에 분리되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시에 복합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莫向毛黎嶺山行	모려산 쪽으로는 향하지 말자
蓁蓁厓嶠使愁生	우거진 숲 낭떠러지가 근심 자아낸다네
眼前一碧無邊水	눈앞에는 끝도 없는 푸른 물
如見蝦夷匹練城 ⁵³⁾	하이들 필련성 ⁵⁴⁾ 이 보일 것 같네

제2수에서 다산은 장기 바닷가에서 일본 쪽을 조망하고 있다. 그런데 바다 너머 일본으로 시선을 두면서 다산은 엉뚱하게도 모려산 쪽으로는 향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근심을 자아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려산이 어디길래 다산은 일본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모려산을 생각하는 것일까?

모려산의 위치는 장기 유배기 다산의 또 다른 시 『유산(酉山)』은 귀양

53) 제2수

54) 『국역 다산시문집』에서는 각각 하이(蝦夷)를 고대 일본 북단에 거주하던 미개 종족으로, 필련성(匹練城)을 백마(白馬)를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으로 설명한다. 『국역 다산시문집』 제4권 193-194쪽 주1, 2번.

살이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곳이다. 집을 떠나 있어 마음을 편안히 하지 못함이다[西山遷人之思也 離其室家不能安土焉]⁵⁵⁾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다산은 모려령이 고향 초천에 있는 여산⁵⁶⁾이라 밝히면서, 고향에 이르면 자신의 답답함이 풀리리라⁵⁷⁾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다산은 장기가 면한 동해 앞에서, 시선을 일본 쪽에 두면서도 마음으로는 모려산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장기의 환경을 관찰하는 중에도 그리운 고향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다산의 이런 모습은 장기에 묶인 적객의 향수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의 향수는 초천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다산은 장기 지방의 토산품인 해구신을 시에 쓰면서 해구신을 구매하려고 장기까지 서신을 보내는 서울 재상들을 언급하는가 하면,⁵⁸⁾ 동산의 뇌록을 보면서 제용감을 떠올리기도 한다.⁵⁹⁾ 자기가 떠나온 정치 무대의 일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산은 한양과 초천의 환경에서 강제로 격리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환경과 상황을 단박에 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동해를 바라보며 오히려 초천의 모려산을 떠올리고, 장기의 해구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의 관료들을 염두에 두며, 뇌록을 보면서 꺾내의 제용감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자신이 잘 아는 세계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거하던 시공간이었다. 그런 자신의 세계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지금의 다산은 자신의 세계였던 그곳을 유배지에서도 기억하고 떠올려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다산은 배소에 있다. 향수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울울한 날들을 보내는 유배객의 신분이다. 그래서 다산은 스스로를

55)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408-409쪽.

56) “黎山 毛黎嶺也”

57) “西山之下 爰有我廬 洌之洋洋 有物其魚 有園有圃 有琴有書 登彼黎山言采其蔚 涉彼潢矣 踰彼屹矣 至彼洌矣 抒我鬱矣(후략)”

58) “年來臘肋逢刁躄 頻有京城宰相書” 제9수

59) “東山磊碌亦奇珍 石髓青筋似茯神 染局不曾充歲貢 零陵乳穴自千春” 제10수

다독이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산은 금화전에 오르거나 옥당에 의지할 생각을 끊어버리자 한다.⁶⁰⁾ 유배지에 있는 지금의 형편에 맞도록 어부의 삶이나 살피자 한다. 그래서 장기의 어부가 아내를 맞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식을 분가시킬 때 무엇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시에 담는 것이다. 이것은 유배 상황의 불완전한 내면화이다. 지금 자신이 유배지에 있기는 하나, 유배의 상황에 완전히 스며들지는 못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전히 어부의 삶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금화전과 옥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떨쳐 버리기 위해 대신 어부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서책을 깊이 알아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옆집 아이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산의 모습과,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괴로운 뿌리에 대해 스스로 고백하는 시⁶¹⁾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산은 떠나온 세계를 반추하며 그 세계로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다. 어부의 삶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자신의 소망을 은폐하기도 하지만, 다산은 유배지를 벗어나 다시 그 세계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다. 자신은 유배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산은 자중한다. 해구신을 사기 위해 장기까지 편지를 보내는 서울의 재상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은 삼킨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참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구양수의 글에서는 파리 자체만 이야기할 뿐이며, 공물 문제를 놓고 목민관의 도리를 언급하는 대신 중유혈 이야기만 시에 넣는 것이다.

다산은 장기로 향하는 도중, 하담에 들러 선친 묘소에 참배하였다. 참배 당시의 심정을 그린 시에서는 유배객이 된 자신의 참담함을 표현했으나, 다음 여정에 다다른 다산은 유배객의 울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신립(申昶, 1546~1592)의 패인을 분석하는 현실 참여적 모습을 보인다.⁶²⁾

60) “休上金華倚玉堂 魚蠻生理羨漁郎” 제15수

61) “書卷深知誤此生 餘生逝與割恩情 心根苦未消磨盡 臥聽隣兒讀史聲” 제18수

62) 김은미, 『정약용 시문학의 노년 인식 양상』,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0

이것은 다산이 고통스러운 유배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으나 여전히 현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지향하던 경제의 꿈을 펼칠 기회도 단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기에 도착한 유배 초기의 다산은 이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적객의 심사나 그려내면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2) 관념적 인식의 탈각(脫却)과 실증 지향적 사고

다산이 관찰자적 시선으로 장기의 면면을 살피는 것은 유배 이전 다산이 보여주던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연상시킨다. 다산은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 특히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와 곡산부사로 재직했을 때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다산이 바라본 백성의 삶은 교화의 대상으로서 파악되는 백성의 삶이었다. 이때의 다산은 관료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려 했다. 백성은 교화의 대상이었고, 자신은 교화의 주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장기 유배기에 이르러서는, 백성은 여전히 교화의 대상일지 모르나 다산 자신은 당분간 교화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심지어,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그 백성의 틈에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지내야 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산이 장기에서 백성의 삶을 바라볼 때는 상층의 관료가 기층의 민을 바라보듯 할 수 없었다.

유배 전에 다산은 『양강에서 고기잡이를 만나다[楊江遇漁者]⁶³⁾』에서도 어부를 시화(詩化)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의 어부는 매우 관념화된 어부였다. 멀리서 바라본 어부의 삶은 관념의 윤색을 통해 이상적으로 그려졌다. 이 시의 제3수에는 잡은 물고기를 팔기 위해 어부가 관솔불을 켜놓고 고기를 가지에 꿰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산은 이 장면을 그려내

-122쪽.

63) 이 시는 다산의 나이 35세 때 지은 시이다.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3, 315쪽.

면서도 고기 냄새를 듣는다[聞魚香]는 낭만적인 표현을 보여주며, 비린내에 대해서도 ‘성(腥)’이 아니라 ‘향(香)’이라는 시어를 사용한다. 이런 현실성의 탈색은 다산이 고기잡이 영감의 삶을 이상화한 데 기인한다. 다산의 시에서 어웅의 삶은 현실적 어부의 삶이 아닌 탈속적 어부의 삶으로 그려졌던 것이다.⁶⁴⁾ 그런데 『기성잡시』에 제시된 어부의 삶은 이보다 현실적이다.

休上金華倚玉堂	금화전 오르고 옥당 의지할 생각 말게
魚蠻生理羨漁郎	고기잡이 생활습성 어부를 부러워 한다네
迎妻好贈鯨鬚尺	아내 맞이할 때에는 곧잘 고래수염 자를 주고
析子皆分蟹甲鎗 ⁶⁵⁾	자식 분가시킬 때는 모두 게딱지술 나눠주네

시에서는 어부의 사실적인 생활 모습을 소개한다. 어부는 아내를 맞아 들일 때 고래수염 자를 주고, 자식을 분가시킬 때는 게딱지같은 작은 술을 나눠줄 뿐이다. 고래수염으로 만든 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⁶⁶⁾ 자식을 분가시키면서 혼수로 작은 술 하나를 주는 것은 『양강에서 고기잡이를 만나다[楊江遇漁者]』에서 파악했던 여유있고 이상적인 어부의 삶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다시 옥당에 들 기대 따위는 애초에 끊어버리느라 어부의 삶이나 살핀다던 자중의 태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때의 어부의 삶은 현실 자체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성잡시』에서는 ‘문어향(聞魚香)’ 같은 미화된 시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 비린내[腥]⁶⁷⁾이고, 파리가 꼬이

64) 이것은 타인의 노년을 이상화하고 그 노년을 선망하는,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다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김은미, 앞의 논문, 50-51쪽 참고.

65) 제15수

66) 고래수염의 일정한 간격 때문에 고래수염을 자로 만들어 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광사지』에는 책 이름표인 경패를 고래수염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67) “新榨魚油腥滿家” 제7수

는⁶⁸⁾ 고약한 냄새일 뿐이다. 어부의 삶을 이상화해서 이해하던 유배 전과 달리, 장기에서의 다산은 사실에 기반하여 어부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관념적 인식을 벗고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⁶⁹⁾

『기성잡시』에 나타난 다산의 관찰에는 또한 실증 지향적 사고가 드러난다. 다산은 자신의 배소와 주변의 새로운 세계를 관찰하는 중에 이런 저런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는다. 제1수에서는 다산의 실증 지향적 사고의 편린을 찾을 수 있다.

星山浦口石爲門	성산포 포구는 돌로 문을 삼았는데
東直扶桑水氣昏	동으로 부상까지 물빛만 아스라하다
豈有龍來平島嶼	어찌 용이 와서 섬들 평정했겠나
鷄林六部亦荒村 ⁷⁰⁾	계림의 육부 역시 황폐한 마을이라네

다산은 동해의 풍경을 시로 썼다. 시에 그려진 동해는 섬 하나 없이 물빛만 아스라하다. 동해에 섬이 없는 것은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신용이 포구에서 나와 모든 섬들을 다 깎아 없애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다산은 용이 와서 섬들을 평정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그 의심의 근거로 신용 전설의 출처 문제를 언급한다. 전설이 전하는 성산은 경주에 있는데, 그 경주 계림의 6부 역시 이제는 황폐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여, 그 전설도 경주의 황폐함과 마찬가지로 퇴락한 이야기여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연 환경을 설명하는 지역의 전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위에

68) “鮑腥蒸鬱苦多蠅” 제22수

69) 다산의 이런 태도가 장기 유배기에 새롭게 발현된 것인지, 기존의 실증 지향적 사고가 이 시기에 더욱 부각된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를 보강하여 발표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70) 제1수

대해 합리적으로 확인해 보는 다산의 태도가 드러난다 할 수 있다.

『기성잡시』의 마지막 수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대해 사실 관계를 따져 보는 다산의 모습이 나타난다.

西南海色接金陵	서남해 바닷빛 금릉까지 닿고
商舶東來數日能	장사배도 동으로 와 며칠이면 된다지만
未信瓊雷解相望	경뢰 바라보인다는 그 말 믿지 못하겠네
叢攢島嶼碧峻嶒 ⁷¹⁾	뽁뽁하게 모인 섬들 푸르고도 험하니

지역민들은 장기가 중국과 가깝다고 이야기한 듯하다. 서남해빛이 닿는다고 한 점과 경뢰⁷²⁾라는 시어를 고려할 때, 금릉은 중국 난징을 이르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남해 바다가 금릉까지 닿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발한 장사배도 동쪽으로 며칠만 오면 장기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경뢰도 보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다산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장기에서 금릉이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믿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자신의 견해를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은 뽁뽁하게 모인 섬들이 푸르고 험하다고도 시에 적었다. 얼핏 보아 이것은 동해에 섬이 없다는 제1수의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로 보이지만, 푸르고 험한 섬들이 뽁뽁하게 모여 있으며 그 섬들 사이로 경뢰가 보일 리가 없다는 제26수의 이 언급은, 장기가 먼 동해가 아닌 서남해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서남해의 다도해 사이로 시야가 막혀서도 경뢰를 볼 수 없다는, 사실 관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71) 제26수

72) 중국 광둥성의 뇌주반도(雷州半島)와 남해도(南海島) 사이에 위치한 경주해협(瓊州海峽)을 일명 뇌주해협(雷州海峽)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경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역 다산시문집』 제4권 198쪽 주33번 참고.

내용인 것이다.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사실에 근거하여 그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다산의 실증 지향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⁷³⁾

5. 결론

이 연구는 장기 유배기 초기의 시를 통해, 시에 나타난 다산의 유배 초기 정서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였다. 유배라는 인생 최대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된 다산의 정서를 그가 남긴 시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기성잡시』를 살펴보면 다산의 시선은 자기 문제로 향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향하기도 한다. 형제의 죽음을 목도하며 떠난 장기 유배 길에서 인간 정약용이 가졌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기록의 엄정함 때문에 자기 검열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다산은 자기 응시의 시선을 통해서 적객의 울울한 심사와 향수를 드러내는 한편 유배객 신분을 각성하고 자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산은 또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는 관념의 껍질을 벗고 현실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실증지향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유배 상황에 처하여 자중하는 태도에 가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산은 실증적으로 사고하면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념을 탈각하고 현실적으로 민의 생활을 인식하는 장기 유배

73)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실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청나라에서는 고증학(考證學)이, 일본에서는 고학(古學)이, 조선에서는 실학(實學)이 힘을 얻고 있었으며, 실증을 중시하는 이런 실학적 태도는 당대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다산 시문학에 나타난 실학적 사고는 이런 점에서 17, 18세기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다산의 태도는 이후 강진 유배기에 이르면 보다 적극적인 사회시로 구체화된다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이 추정이 힘을 얻게 된다면, 다산의 씩진한 현실 인식과 사회 비판의 태도는 교화의 주체라는 자리를 벗어난 유배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사실적 힘을 얻게 된 것이라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론은 다음으로 미룬다.

참고문헌

김학주 편역, 『고문진보』, 명문당, 1989
다산학술문화재단, 『정본 여유당전서』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중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DB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김봉남, 「다산의 장기 유배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8권, 한국한문학회, 2006.12, 365-395쪽.
김윤규, 「장기 유배기 다산 시의 성격」, 『동방한문학』 57권, 동방한문학회, 2013.12, 253-281쪽.
김은미, 「정약용 시문학의 노년 인식 양상」,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준오, 『시론』 제3판, 삼지원, 1991.
송재소, 『다산시연구-부 다산연보』, 창작사, 1986.
정민, 『파란』, 천년의상상, 2019.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6.

<Abstract>

Two gazes of Dasan in 『Giseongjapsi (讐城雜詩)』

Kim, Eun-Mi*

『Giseongjapsi (讐城雜詩)』 is the poems in the early days of Dasan's Janggi(長鬢) exile period, and has been understood only as a poetry describing the landscape of Janggi and the lives of the Janggi people. But behind 『Giseongjapsi』, two gazes of Dasan appear. The one is the gaze of his own stare that is immersed in his own issues and the other is the observer's gaze to the new world he is facing.

Dasan sees himself who is sickly living a tedium life in the place of exile, Janggi. As he thought that this situation of exile is because he knew books deeply, still he portrays the appearance of himself as a poem that cannot let his interest away from books. Meanwhile, on the one hand, he also sends a gaze at his new environment, including the dialect and headdresses of Janggi women, the bleak landscape (殺風景) of Janggi region, and the lifestyle and specialties of Janggi region.

These two gazes in (向內) and out (向外) of the village reveal Dasan's emotion, while revealing nostalgia and gloom of deportee, whereas they reveal Dasan's empirical oriented thinking that removes the ideological perception of the people, who have been identified as the object of edification.

To clarify the overall appearance of Dasan's poetry, Dasan's

* Pusan National University.

emotion appearing in the exile period literature, which is the inflection point of life, should also be identified, and among the exile period literature collectively calle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iterature of the Janggi exile period. In this sense,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to reconstruct Dasan's emotion appearing in his poems in the Janggi exile period sequentially from the beginning.

Key Words : Dasan, Jeong Yak yong's Poetic literature, 『Giseongjapsi (髻城雜詩)』, the literature of the Janggi exile period, the exile period literature, Dasan's poems

■ 논문접수 : 2020년 3월 12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2일

■ 게재 확정 : 2020년 4월 17일